

통신3사, AI 스타트업 육성 통해 미래먹거리 선점 모색

LG U+ 50억 규모 전용 펀드 조성
프로그램 ‘쉬프트’ 1기 통해 선발

SKT 공모로 선발된 15개 팀과
AI 관련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

KT ‘퓨처 웨이브 테크 데이’ 열고
스타트업과 기술·사업협력 과제 공유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스타트업 랩에서 열린 SK텔레콤의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3기 발대식 현장의 모습. /SKT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의 지원을 통해 기술 우군 확보에 나섰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래기술 및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신3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망 AI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딥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5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페어리·르몽·테크노매트릭스·에임인텔리전스 등 4개 유망 AI 스타트업으로, 이들은 LG유플러스의 AI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쉬프트(shift)’ 1기를 통해 선발됐다.

‘쉬프트’는 유망 초기 AI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술 협력과 투자를 지원하고, AI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이다. LG유플러스는 단순 재무 투자에 그치지 않고, 내부 조직이 직접 실증(PoC)부터 기술 연계, 사업화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밀착형 협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이달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스타트업 랩에서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3기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 5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발된 15개 팀

이 참여하며, AI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6개월 간 ▲AI 특화 멘토링 및 세미나 ▲SK텔레콤과의 사업 협력 기회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의 멘토링 및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외부 IR 행사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KT도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KT 트랙에 선발된 스타트업들과 함께 ‘KT 퓨처 웨이브 테크 데이’를 열고, 기술 및 사업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업과 공동 협업 과제를 구성하고, 기술 검증부터 서비스 출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KT 외에도 중기부, 창진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두왓·제노드·모놀리·에스에스엘·올거나이즈코리아·맥케이·에이아이포켓·뉴런즈·데이터메타카·

리티브·커넥트브릭·일루니·에드테일러 등 13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소개하고, KT와의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스타트업 육성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는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각 사가 강조하는 ‘AI 전환(AX)’ 속도전을 고려할 때, 외부 기술 수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은 ‘혁신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M&A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PoC(개념검증)를 명분으로 협업을 시작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지분 투자나 인수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투자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네이티브 서비스, 수익화 핵심전략”

SPRi ‘SW 중심사회’ 보고서

SW기업에 새 수익 모델 개발 제안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신규 시장 창출과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AI 네이티브(인공지능 중심) 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최근 발간한 ‘SW 중심사회’ 보고서에서 “AI 네이티브 서비스는 기존 SW 서비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중심 서비스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수익화의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AI 네이티브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능이 핵심적인 요소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기반 ▲지속적 학습 ▲적응성 및 자율성 ▲자연어 처리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 학습·추론하고, 패턴과 통찰을 도출한다. 데이터 업데이트와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업무를 처리해 사람의 지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이 간소화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SW 기업이 AI 네이티브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가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새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고서는 인공지능 중심 서비스의 원료에 해당하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당장 수익화가 어렵더

라도 데이터 조달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집 가능한 공공 데이터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AI 중심 아키텍처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SAP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AI 서비스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냈다.

버티컬(산업 특화) 솔루션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미국의 방산 AI 기업 팔란티어는 미군과 미 정부,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시각화하는 플랫폼으로 빈 라덴 은식처를 추적하거나 멕시코 마약 조직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김현정 기자 hjk1@

SKB

두 달간 출동비 면제

SK브로드밴드가 앞으로 두 달 동안 IPTV, 케이블TV 출동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초고속 인터넷, B tv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신규 및 장기 고객 대상으로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365설치’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SK브로드밴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함께夏(하)고 행복夏(하)세요’란 프로모션을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장기 고객을 위한 감사 혜택도 마련됐다. 3년 약정으로 구형 셋톱박스를 5년 이상 사용한 고객이 스마트3, 스마트3 미니, AI 4비전, AI스피커형 등 최신 셋톱박스로 교체 신청을 하면, 셋톱박스 임대료가 이용 기간 동안 매일 4400원 할인된다. /김현정 기자

LG U+, 폭염에 현장직원 안전지원책 마련

음료 구입비 지원·휴식시간 마련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폭염이 가장 심한 낮 시간대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음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30분의 휴식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폭염 작업 시 부여되는 기본 휴게 시간과는 별도로 휴식과 수분 보충을 지원해 직원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폭염단계 중 ‘관심단계’ 이상 발효 시 현장 직원에게 지역별 폭염 특보를 반영한 문자 메시지(MMS)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 근무 중 식수를 마시는 LG유플러스 직원의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물품도 배포했다. 체온 관리에 효과적인 냉감 넥스카프·쿨토시와 함께, 식수, 이온음료, 식염 포도당을 지급했다. 작업 대기 시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차량용 냉장고를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김서현 기자

KT, ‘나라사랑 카드 발급’ 플랫폼 구축

군인공제회C&C와 맞손

KT가 군인공제회C&C와 ‘국방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국방 나라사랑 카드 발급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라사랑카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KT는 ▲생체인증 기반의 무인 셀프 등록시스템 ▲스마트 발급관리 플랫폼 ▲보안 체계 강화된 업무지원 시스템 ▲이용자 접근성·편의성 제고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라사랑카드의 신청부터 발급, 이력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간소화하고 병무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될 시스템은 병무청 내 안면·지문 기반 생체인증, AI를 활용한 실시간 신원 확인 및 병역 회피 방



KT와 군인공제회C&C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는 모습. /KT

지 기능,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인프라 확장성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금융사와 병무청이 시스템을 연계해 병역의무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차세대 나라사랑 카드발급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그동안 차세대 지능형 SDDC(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기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도 안정적으로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맵, 이용자 정보제보형 서비스 오픈

제보리워드 오픈기념 행사

카카오의 지도 앱(APP) 카카오맵이 14일 이용자 참여 기반의 정보 제보형 서비스 ‘제보리워드’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2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보리워드는 음식점 영업시간이나 메뉴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제보하고, 해당 정보가 승인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톡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포인트를 지급받는 참여형 서비스다. ‘음식점’ 카테고리의 영업시간과 메뉴를 제보할 수 있고, 한 장소당 최대 4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쇼핑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카카오맵 독채널 추가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카카오맵 앱 상단에 위치한 ‘제보포인트’ 버튼을 누른 뒤 후보 장소를 선택해 수정이 필요한 영업시간 또는 메뉴 정보를 제안하면 된다. 지도에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 해당 위치를 길게 누르면 나타나는 ‘신규장소’ 제보에서 음식점 등록을 제안할 수 있다. 제보리워드는 카카오맵 앱을 최신(버전 6.4.0)으로 업데이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승인된 제보 1건에 한 해 1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보너스 쇼핑포인트는 기본 리워드와 별도로 순차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서현 기자